

“내 얼굴인데”... 결혼사진 원본파일 소유권 논란

웨딩업체들 저작권 주장하며 추가비용 요구 잇따라

계약여부 따라 결정... 촬영진 꼼꼼히 따져야 피해 줄어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부 정모씨는 웨딩촬영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듣고 사진을 찍었으나 촬영이 끝난 후 업체 쪽에서 원본사진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추가비용’을 요구해 당황했다. 원본사진이 담긴 CD를 25만원에 따로 판매하고 있으며 포토샵 등으로 보정된 사진을 받으려면 여기에 5만 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결혼한 이모씨 역시 결혼식 원본 사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혼 앨범을 받으면서 웨딩사진 촬영업체에 액자를 하려고 원본 파일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주문한다면 제작해줄 수 있지만 원본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기에 줄 의무는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27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결혼시즌이 되면서 웨딩촬영 업체와 예비부부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원본 사진 저작권(소유권)과 비용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이 촬영을 마친 뒤 원본과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을 계약 외에 따로 판매하면서 예비부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관련단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라 원본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에 있기 때문에 상거래 행위는 계약에 준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디지털 방식의 원본사진 파일을 소비자가 요구하면 인도하되 제작비에 준하는 적정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소

비자들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또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알리면 손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릴 의무에 대해 소홀하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원본사진을 구매하지 않으면 결혼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을 직접 고를 수도 없고 업체에서 임의로 골라 만들어주는 사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문제는 웨딩촬영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가족사진과 자녀 성장 앨범, 여권사진 등의 촬영이 빈번해지면서 원본사진을 놓고 업자와 소비자가 다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육아나 결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진관에서 촬영한 필름 원본이나 원본사진 파일을 받지 못해 재인 화나 홈페이지 업로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 파일을 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진마다 스튜디오 로고를 크게 넣어 쓸 수가 없다’, ‘사진 파일 크기를 증명사진 정도로 만들어

줬다’ 등 황당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사진관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일부 부당한 상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본 파일을 주지않는 이유는 고객이 계약과 달리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협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권 사진의 경우 적정가격을 1만7000원 정도로 정하고 원본 파일 요구 땐 추가로 5000원, 원본 파일만을 원할때 1만6000원을 받는 등 정가제 실시를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촬영 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지지만 촬영 이후 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촬영 전 이를 쟁점 꼼꼼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31.97 (+6.28)
- ▲ 금리 2.22% (+0.01)
- ▼ 코스닥 559.92 (-0.74)
- ▼ 환율 1052.20원 (-5.30)

전남테크노파크, 풍력·태양광기업 맞춤형 마케팅 사업

전남테크노파크(원장 홍충희)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호남권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기술고도화,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의 통합공고를 통해 연계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풍력·태양광 관련 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희망분야에 대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729-283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디딤돌 대출 완화 40만가구 추가 혜택... 광주·전남은 ‘0’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추가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4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수혜 단지는 서울과 경기도에 대부분 몰렸으며 광주·전남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721만3141가구 가운데 디딤돌 대출 신청 기준 완화로 새로 혜택을 보게 된 전용 85㎡ 이하, 시가 4억~6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39만5232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만2203가구로 전체의 7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점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2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완화해 적용하면서 4억~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전국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전용 85㎡ 이하, 시가 4억~6억원 이하 아파트는 모두 562만7554가구로 조사됐다. 광주는 20만9841가구, 전남은 10만4381가구가 해당된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5만원권 비중 70% 넘었다

전체 화폐 발행량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49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1만원권 등을 포함한 전체 화폐발행잔액(69조1000억원)의 71.0%를 차지했다. 2009년 처음으로 발행된 5만원권은 발행 첫해 비중이 전체 화폐량의 28.0%에 불과했지만 2010년 46.0%, 2011년 55.8%, 2012년 62.8%, 작년 66.5%로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 67.6%, 8월 67.8%, 9월 68.4% 등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비해 1만원권 발행잔액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09년 전체 화폐 발행잔액의 65.7%였던 1만원권은 2011년에 39.2%로 5만원권보다 비중이 작아졌다. 2012년 32.5%, 작년 29.2%, 올해 들어선 25.0%까지 비중이 떨어졌다.

5만원권 발행잔액이 빠르게 확대된 요인으로는 거래 편의성, 경제규모 확대, 1만원권과 수표 대체 효과 등이 꼽힌다.

/연철뉴스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광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ℓ 당 1600원대에 진입했다. 27일 광주 동구의 한 주유소 가격 표시판에 휘발유 가격이 1ℓ 당 1698원을 나타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가 연일 하락세... 광주 휘발유 1ℓ 당 1600원대

당분간 지속... 경유도 내려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광주에서도 보통 휘발유를 1ℓ 당 16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 유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픈넷(OPINET)에 따르면 이날 광주 지역 주유소 30여 곳에서 휘발유를 1ℓ 당 1600원대에 판매하고 있었다.

광산구의 알뜰주유소인 평동제일주유

소가 1679원을 고시해 광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북구의 (주)에스오두리주유소가 1689원, 남구의 SK드림주유소가 1693원을 기록했다. 또 동구의 문화전당주유소와 서구의 SK우리셀프주유소가 1695원, 동구의 SK더그린(1696원)·GS강변주유소(1697원)도 1600원대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광산구 지역은 내 휘발유 최저가와 최고가가 1ℓ 당 220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지역 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2012년 4월

2049.72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지난 달 19일 1ℓ 당 1799.29원으로 2010년 12월 이후 약 4년 만에 1ℓ 당 1700원대로 떨어졌으며 이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1ℓ 당 1744.64원으로 전남보다 1.99원 떨어졌다. 1년 전 가격(1867.06원)에 비하면 120원 이상 싸졌다. 경유 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여 27일 현재 기준 평균 1554.42원을 나타냈으며 전일보다 0.78원 하락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권 외국인 취업자 비중 전국 외국인중 5%

광주와 전남·북 외국인 취업자는 전국 외국인 수의 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광주와 전남·북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 중 취업률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수는 4만6000명으로 전국 89만6000명 중 5.2%였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65%로 평균 71.4%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외국인인 2만5000명(전국 외국인 비경제활동 인구의 6.9%)으로 경제 조건이 비슷한 대구·경북(6.1%)에 비해 다소 높았다. 외국인의 지역별 고용률 역시 광주와 전남·북이 64%로 서울과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률은 부산·울산·경남(74.9%), 경기·인천(73.4%), 대구·경북(69.4%), 대전·충남·충북(68.4%) 순이었다.

한편 5월 현재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총 85만2000명, 실업자는 4만4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6만명이었으며 취업자의 60% 이상이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절반 이상이 1주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erom.com http://cat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 백현교수, 중개법: 홍덕기교수, 공법: 이강열교수
학개론: 임진택교수, 공시법: 안규재교수, 세법: 임기원교수

개강 11월 10일

주부반 11월~12월 기출과제 전 과목 강의합니다.
성인반 인디네 동영사 수업은 무료

합격을 위한 1등학원
선배 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합격률 99% 책임강의
자율연습 시스템! 모든면 일대일
기출과제 11월~12월 기출과제 전 과목 강의합니다.
기출과제 11월~12월 기출과제 전 과목 강의합니다.
기출과제 11월~12월 기출과제 전 과목 강의합니다.

광주새롬학원에서 제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점 361-8111

NAVER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년 근조화환3년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